

국내선교위원회, 제12기 교회개척학교 개강

지방회별 개척교회 유치 위한 설명회 진행

국내선교위원회(위원장 이종동 목사·이하 국선위)는 지난 11월 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간의 일정으로 교단내 교회개척 희망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제12기 교회개척학교를 진행했다.

김포하늘바람교회에서 진행된 개척학교는 총 10명이 입소해 교회개척에 대한 열의를 다졌다.

전승학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개강예배에서는 위성설 목사의 기도 후 총회장 목사인 목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는 제목으로 참석자들에게 말씀을 전했다. 총회장은 "목회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해야 한다. 성령이 역사하고 도와주셔야 한다"며 "교회부흥이 목적이면 안되고 한영혼을 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섬겨야 한다"고 말했다.

교단 총무 권순달 목사도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 하며, 개척학교를 통해 복음의 열정을 일깨우는 운동이 일어나길 바란다"고 말하고 "인간들이 좋아하는 교회보다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성령적인 남반을 꿈꾸는 그러한 목회자와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번 제12기 교회개척학교는 개척



교회와 목회자의 심정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은 역시 교회를 개척한 사람. 그 보다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 목회자라는 사실이 더욱 빛을 발한 행사였다. 수업은 강정규 목사가 진행한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시냇가푸른나무교회 신유백 목사의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에 대한 주제강의와 참석자 소개, 11기 수료생들의 교회개척 이야기도 함께 나누며 사례들을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다.

12기 개척학교의 큰 특징으로는 총회산하 지방회 중 인천서, 대전, 강서, 서울동지방회가 인원들을 파견하여 개척학교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개척교회 유치 설명의 시간을 가졌다. 해당 지방회의 규모와 인구, 교회수, 행정기관 등의 세부적인 자료들을 제시하며 해당 지방회에서 개척시 지방회 지원사항들도 제시하며 교회개척자 유치에 공을 들였다. 이밖에도 단순한 정보전달에서 탈피하여 국내선교위원회의 목회자들

과 전문 멘토들이 동참하여 함께 고민하고 교회개척을 기획하였으며 후반에는 각자 작성한 기획안을 발표하여 서로에게 도움을 주었다. 이번 12기 개척학교 수료생들은 1차 면접을 통해 25일 현재 4명이 선발됐으며, 오는 30일까지 최종면접을 통해 대상자가 선발돼 국선위에서 제공하는 멘토링과 경제적 지원, 인큐베이터 시스템 아래서 교회개척을 준비하게 된다. 지난 11년간 국선위 교회개척학교

를 통해 39개의 교회가 새롭게 창립했다. 한편 국선위의 한 관계자는 "교회개척학교에 대한 뜨거운 관심 속에서 올해에도 준비된 사역자들이 많이 모였으며 이들 중 최적의 인원을 선발해 국선위 교회개척 멘토링 대상으로 선정해 향후 1년여 간 국선위에서 제공하는 멘토링과 인큐베이터 시스템 아래서 교회개척을 준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11월의 성찰

만추(晩秋)의 계절에 이브 몽팡의 고엽(Autumn leaves)을 듣는 호사를 누리다.

모처럼 만난 친구와 점심식사를 하고 그를 따라간 카페에서 친숙한 벨모디와 이브 몽팡의 낮은 목소리로 흐르는 사랑과 이별, 그리움을 서정적으로 그려낸 고엽은 젊은 날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며 가을 속으로 빠져들게 한다.

"창가의 낙엽이 떨어집니다. 빨갛고 노란 낙엽들이, 여름을 스쳐 간 당신의 입술을 밝힙니다.

내가 잡았던 당신의 햇볕 그늘린 손도, 당신이 떠나고 나니 하루하루가 길게만 느껴집니다.

머지않아 겨울 노래를 듣게 되겠지요. 하지만 내 사랑 당신이 제일 그리울 거예요. 낙엽이 떨어지기 시작할 때면"

낙엽이 흩날리는 가을의 끝머리, 추수를 끝낸 벌판에 긴 동면에 들어가고 잎사귀조차 모두 떨어진 갈나무 꼭대기에 까치집이 몇 개 달려있지만, 까치집은 벌써 빈 동자다.

모두 떠나버린 11월 가을 끝자락.

나태주 시인은 11월을 "돌아가기엔 이미 너무와 버렸고, 버리기엔 차마 아까운 시간"(11월처럼)이라 했다.

이제는 내려앉은 찬 공기처럼 마음의 속도를 늦추고 나를 들여다보는 성찰의 시간이다.

지난 세월을 펼쳐놓고 내 삶의 흔적을 살피며, 내 삶과 사역의 동지에 담긴 것을 헤아려 보는 시간이다. 아쉬움과 미련이 많다.

나를, 열심히 살아왔다 싶는데 지난 발걸음은 반듯하지 못한 채 이리저리 흐트러져있고, 빈 둥지인 것이 가슴을 때린다.

그러나, 그런 세월이었다고 한탄하고 우울해하기보다는 아직 남아 있는 새로운 시간들을 고마워하는 지혜가 필요할 때이다. 겨울이 오고 있지만 새로운 기회의 계절이 오고 있음을 감사하자.

아내가 사다 놓은 거실에 있는 제법 오래된 남천나무 잎사귀 사이로 쉽게 볼 수 없는 풍말 같은 붉은 열매가 송골송골 맺혀있다. 밖에는 찬바람이 부는 겨울이 오고 있지만 이렇게 또 다른 곳에서는 생명이 숨쉬고 있다.

가버린 세월 한탄하지 말고, 오는 세월 준비하자. 가다가 겨울이여, 오라 겨울이여!

清水ehc3s@hanmail.net

'세상을 이기는 청년' 성청 철야집회

37개 교회서 456명 참여 은혜의 시간 이어져

총회 청년부부장 이창기 목사는 지난 21일 분래동교회에서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이어지는 철야집회를 갖고 청년부의 활성화를 위해 뜨겁게 기도했다.

전국 37개 교회에서 456명의 청년들이 참석한 이번 집회는 각지에 흩어져 있는 청년들을 한자리에 모아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로 한마음을

갖고 소속감을 함양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행 1:8)라는 주제에 맞게 성령충만 받기 위해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번 집회는 분래동교회와 시티미선교회 찬양 팀의 찬양인도와 광병훈

목사나교회, 홍정수 목사교회학 교연구소장, 박현수 목사동서남북교회가 강사로 나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청년들은 영적인 회복과 도전을 경험했다.

말씀 후 이어진 기도 시간에는 개인적인 회개와 간구, 미래를 향한 헌신을 간구하는 청년들의 도전적인 모습들이 돋보였다.



성결신문사 장로회 장로후원회 정기총회 및 송년회

일시 2025. 12. 19(금) 17:30 | 장소 과천 경마장오리집(과천시 궁평로 20-4)

모시는 글

성결신문사 장로회 장로후원회 정기총회 및 송년회를 갖고자 합니다. 바쁘신 중에라도 참석하시어 의미 있는 시간되시기를 소망하며 초청드립니다.

- 후원회장 박근주 장로 드림 -

총회장



홍사진 목사

후원회장



박근주 장로

사장



김중현 장로

후원부회장



김종상 장로

후원부회장



윤세곤 장로

총무



이광섭 장로

서기



이장호 장로

후원이사(고문)



유광현 장로

후원이사(고문)



서종로 장로

후원이사(고문)



이철구 장로

후원이사(고문)



강규열 장로

후원이사



김원철 장로

후원이사



김궁하 장로

후원이사



박정식 장로

후원이사



이광진 장로

후원이사



장영만 장로

후원이사



정기소 장로

후원이사



정현 장로

후원이사



천민우 장로

후원이사



최승택 장로

후원이사



황제돈 장로

성결신문사 장로회 장로후원회